



인도네시아의 어떤 섬에서 ..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 (빌 3:13-14)

지난 5개월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돌아보며 올해의 세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도 7월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벌써 12월의 첫재날을 맞이 하면서, 올 한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마음의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올 한해를 지냈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적는 지금,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습니다. 에드먼의 이번 주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번에 소식을 전한 대로, 7월에는 와웬 오사카에 있는 성경연구학교에서 강의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강의로 학생을 만날 뿐 아니라 오랜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에게 참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 와웬 오사카 베이스의 성경연구학교 강의
-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성경교사세미나 참석
- 미니 디티에스
- 인도네시아 비전트립
- 베트남과 태국 치앙마이의 제자성경학교 강의

와웬 오사카에서



성경교사세미나

저희가 지난 몇년간 집중해 왔던 제자성경학교 (DBS)는 성경을 3개월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개관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0년 전에 시작했고, 최근에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칠 강사들을 키울 필요를 느끼게 되어 지난 2023년에 남미에서 처음으로 성경교사세미나 (Bible Teacher Seminar = BTS)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이 BTS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는데, 저희도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이 세미나를 통해, 저희 강의 준비에 도움과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학교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눔에 있어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이 사역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연결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니디티에스

9월초에는 저희 베이스에서 미니 디티에스를 열었습니다.

코로나기간에 있었던 임마누엘학교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처럼, 이번에는 대면으로 강의로 듣고 소그룹 나눔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으로 진행한 시간이었지만, 강의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도 함께 하면서 정말 디티에스의 샘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가 정식으로 디티에스를 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가진 스태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미니 디티에스를 통해 정식 코스에 쉽게 오지 못하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인도네시아 비전트립

저희들의 오랜 친구 중 한명이 인도네시아에 마음을 품고 계속 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베이스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난 9월 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은 곳이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곳도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에 헌신된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

지난 소식에 나눈 대로 저희는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자성경학교 (DBS)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둘 다 학교 공부나 베이스 일정 등으로 바빠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 2주의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에드먼의 강의 일정이 하나 더 남아 호치민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은 ...

내년에는 저희가 약 8-9개월가량 싱가포르에 머물 예정입니다. 와웬싱가폴에서 저희 베이스와 함께 제자성경학교 (DBS)를 열기로 하였고, 싱가포르에서 2번의 디비에스(DBS) 섬길 예정입니다.

소식이 없었던 지난 5개월간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재정으로도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강의여행과 비전트립을 다닐 수 있었기에 여전히 해외에 있는 지금, 그 감사함이 좀 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소식에 담지 못한 여러 개인적인 일정들, 또 베이스의 일들로 인해 소식을 이제야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젠 제 소식지의 단골멘트네요 ^^) 저희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년만에 다시 싱가포르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희의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을 의미있게 마무리짓는 1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드먼 + 한나 드림.